

# 조합원의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실관계 확인

2021년 7월 15일 조합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역전이나 터미널 등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임○○조합원(중·동구 대의원), 유○○조합원(남동구 대의원), 정○○조합원(남동구 대의원), 차○○조합원(연수구 대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대의원 회의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대의원으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불신을 조장하고 명예를 실추시켰기에 허위사실에 대한 진실 내용을 공고 하라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 유인물에 기재된 허위사실·유언비어

허위사실	사실확인
<p><b>[조합 복지비에 관한 부분]</b></p> <p>1. 조합복지비 - 매월 10,000 원 인상 이사장이하 전 직원에게 매년 임금인상 + 상여금 200% 신설</p> <p>2. 사전에 어떠한 고지사항도 없이 복지회 규정을 바꿔서 조합원이 불입한 원금이나 이자 조차도(가입비 포함) 전혀 찾아가지 못하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p>	<p>조합비중 복지비는 복지규정에 의하여만 지출되고 조합운영비로는 일체 지출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사장이하 전 직원 임금 및 상여금은 복지기금에서 지출될 수 없고 복지비는 조합원들의 이직위로금, 경조사비로만 사용됩니다.</p> <p>① 복지비 인상은 2018년도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소식지를 통하여 복지비 인상 불가피성을 수차례 홍보하였고 이사, 대의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후 대의원회의 승인으로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현 징계 대상자들도 대의원회에 참석했음)</p> <p>② 복지규정 개정은 그동안 복지비 혜택이 없던 장인, 장모 경조사비 지급과 모든 경조사시 화환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과거의 관례대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조합원이 불입한 원금이나 이자 및 가입비는 환급되지 않음)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징계자들이 참석한 대의원회 승인)</p>
<p><b>[복지충전소에 관한 부분]</b></p> <p>1. 조합원을 위한 복지충전소는 만년적자입니다.</p> <p>2. 만년 적자라고 하는 총평 감사보고서(첨부)</p>	<p>▶ 2012년, 2013년 흑자운영 된적이 있으며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흑자운영 되었고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4백만원 적자운영, 2021년도 상반기 약1억2천만원 흑자운영 되었습니다.</p> <p>※ 별지참조 [년도별 충전소 투자현황 및 손실 현황]</p> <p>▶ 이미 공지해드린바와 같이 2020년 결산 감사보고서에서 총평과 지적사항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있어</p>

3. 총33억 투자해서 1층전소와 2층전소에 총 보증금 6억만 남아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관한 보충 설명]**

1. 공제조합 파탄 부도라는 주장과 이사장 계약활동비 사용

2. 공제조합 사고처리 현장출동시 사고처리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

조합에서 감사에게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보내고 수정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으며 이에 감사(장○○, 박○○)님들이 내용증명으로 감사 총평과 지적사항을 모두 철회한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이와 같은 내용을 대의원회에 안전 상정하여 감사님들의 의견대로 총평이나 지적사항을 철회하여 없는 것으로 수정 승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징계자들이 감사가 철회하고 없는 총평을 유인물로 배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결시 징계자 대의원회 참석했음)

▶ 총33억 투자금액중 2019년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15억에서 5억으로 인하여 10억을 조합에 상환되었으며 현재 총 23억이 투자되었습니다.(징계자 참석한 대의원회 보고 되었음)

※ 별지참조 [년도별 충전소 투자현황 및 손실 현황]

▶ 공제조합의 적자운영에 대한 분석을 역대 이사장들이 공제민원해결을 위해 사용했던 계약활동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입니다. 적자운영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담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9년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았던 원인과 사고증가와 보상단가 상승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 이사장님들과 故김민환 이사장도 계약활동비를 사용했습니다.

▶ 공제조합의 사고처리 현장출동서비스를 마스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것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2018년부터는 조합의 선출직 지부장에게 현장출동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 현장출동은 예전에 마스터가 위탁운영 하였을때도 사고처리 전문가가 아닌 견인차 기사가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출동요원 업무는 사고처리를 하기위해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 직원(공제조합 직원이나 보험사 직원)의 보조 역할로 현장보존(인적사항, 인적물적 피해확인, 사고 현장 사진 수집 등)을 확인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사고현장 출동에 사고처리 전문가를 투입하는 공제 보험이나 보험사는 한군데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 [년도별 충전소 투자현황 및 손실현황]

구분	투자액	영업손익	횡령	부실채권 부실자산	보증금	소장
2008년	22억	-62,513,668				송○○
2009년		-87,744,265				송○○
2010년	8억	-136,520,830		2억8천	15억	황○○
2011년		-145,196,793				오○○
2012년		79,902,817				오○○
2013년		10,072,568	약2억3천8백			오○○
2014년		-197,918,987			15억	송○○
2015년		-17,034,743				송○○ 이○○
2016년		-66,013,009				오명관
2017년	3억	45,275,821			18억	오명관
2018년		24,301,807				오명관
2019년	10억 회수	75,425,223			8억	오명관
2020년		-4,153,375				오명관
2021년		120,509,447			6억	오명관
총계	23억	-225,073,375 (전기오류수정이익 136,534,612원 반영)	약2억3천8백	2억8천	6억	

※ 2021년 6월말현재 총 투자액 23억중 보증금 6억, 대여금 2억8천3백만원, 운영보유자금 6억7천4백만원(통장 : 566,147,178원, 카드미수금 및 기타미수금 : 107,852,822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손실금 합계 약743,000,000원중 지난 12년간 영업손실금 225,073,375원(전기오류수정이익 136,534,612원 반영), 횡령 약2억3천8백만원, 부실채권(보증금 미회수) 2억8천만원 입니다.